

## 한라포커스 가파도 프로젝트 어디까지 왔나



제주자치도가 133억원을 투입, 가파도를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구축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섬 전체에 새로운 활력과 문화의 기운을 불어 넣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야심찬 출발... 사업 성패는 미지수

133억 투입 '예술·문화가 있는 섬' 구축 추진  
공사 중단으로 미관 저해... 파급효과도 미흡  
사업 추진과정서 불거진 주민 갈등도 진행형

제주자치도가 지난 5년 동안 가파도를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섬 전체에 새로운 활력과 문화의 기운을 불어넣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이권 문제로 불거진 가파도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공사중단 건축물들이 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9월 가파도를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가파도 프로젝트 기본구상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19개 사업에 총 133억원을 투자했다. 가파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제주도는 현대카드와 가파도 프로젝트 공동협력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가파도 주민들과 함께 자연생태계의 복원, 섬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경제 기반의 구축,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 등을 추진했다. 작가들의 개인 숙소와 작업공간인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AIR', 휴식공간인 '스넥바&아카이브룸',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6동', 선주사무실 및 해녀들

이 해산물물을 구워 판매할 수 있는 '어업센터&레스토랑', 버려진 농협창고를 리뉴얼해 마을강당을 만들었다. 여객터미널 신축과 경관을 위해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하수처리 개선, 담수시설을 통해 물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 12일 가파도 마을강당에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 지원시설 개관식'을 개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개관식에서 "가파도 프로젝트가 제주의 다른 부속 도서를 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새로운 대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가치를 더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주는 가파도가 아닌 주민갈등을 대표하는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권 때문에 발생한 주민간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스넥바와 레스토랑 운영 등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전체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카이브 전시공간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아름다운 섬 가파도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등 공사중단 건축물들은 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가파도로 작가들을 유인하기 위해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AIR'까지 만들었으나 작가들의 활동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잘 됐고, 하수처리와 담수화시설로 민박집들은 이제 물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주민소득과 일자리창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작가를 위한 문화창작공간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권개입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가파도에는 2개의 파벌이 생겨나 지역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됐고 공사중단으로 인해 숙식비 7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묵수와

인부들은 일당을 받지 못해 건설사를 압류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현대카드가 추진한 가파도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사중단 건축물들을 하루속히 완공하고 주민들간의 갈등도 치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서 중단된 건축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재 폐루의 작가가 가파도 초등학교생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작가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사회공헌 차원에서 수년 동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는데 건축물공사 중단 문제 등이 벌어져 난감하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 태풍 '솔릭' 피해 53억5000만원 잠정 집계

사유시설 피해접수 확인  
오는 10일까지 기한 연장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일 현재 53억 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태풍 '솔릭'으로 인해 공공시설은 위미항 방파제 유실, 도로 침수 3개소, 하천시설 유실 1개소,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파손 2.2ha, 수산증양식시설 4개소 등 약 13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농작물의 경우 일정 기일이 지난 후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 접수기간을 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피해접수 및 확인기간이 종료되면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 등 30억원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면 제주도는 이에 따라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생태·환경 반영"

도의회 5일 제3차 도정질문  
원 지사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유지한 채 생태와 환경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요구하는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도정질문에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제주의 GRDP가 5조원에서 17조원 규모로 3.3배 정도 증가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10여년간 한 것이라곤 개발사업 뿐이고, 도정이 국제자유도시의 외형 키우기에만 몰두한 결과 제주 고유 가치는 파헤쳐지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생태평화도시 및 지속가능 제주발전'으로 '국제자유도시'로 특별법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틀은 놓아두되 생태와 환경을 적극 반영하는 조화로운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에선 처음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사업자측의 행정소송 가능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자 "새 정부 출범 후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어떡할지 논의했

지만 결론은 없다"며 "JDC도 물론 책임 문제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이든, 대안이든 정부가 회피해선 안된다"고 답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도 남겼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자 "실물화폐와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사기·횡령·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시켜 은행 거래가 막혀 있고, 외국에 가서 번 돈을 들여올 방법도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숙자거리에 비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최근 구입하신 **블랙박스 제품**에 대해 **검합**을 느끼신 분들은 저희 매장을 방문하시어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711-6544**

2018 제주국제사이클링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 전국 최초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 지속가능 미래농업, 제주농협이 일어나가겠습니다.

### 제주농협 3UP - 3DOWN운동

**3UP**

- ◆ Quality Up : 농축산물 품질 향상
- ◆ Added-Value Up : 부가가치 제고
- ◆ Channel Up : 유통경로 확대

**3DOWN**

- ◆ Production cost Down : 생산원가 절감
- ◆ Distribution cost Down : 유통비용 축소
- ◆ Overproduction Down : 과잉생산 해소

## 대한민국 행복꿈틀

행복꿈틀은 농업인과 국민의 꿈을 키우는 틀이 되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H농협의 약속입니다

산나라! 맘 흘린 농업인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틀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틀

함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누구나, 어디서나 스마트한 금융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농협

**NH 제주농협**